

누리호 5호기, 발사대로 이송 시작

- 발사체 기립 후 추진제 공급을 위한 엄빌리칼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 진행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은 10월 6일(화) 오전 6시부터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발사대 이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날인 10월 5일(월) 오후 6시 30분 발사준비위원회를 열고,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등을 검토하여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이송될 예정이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준비 작업을 거쳐 기립하게 되며, 이후 누리호에 전원과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과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사대 이송부터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 각 단계에서 이상이 없으면 오늘 중 누리호의 발사대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내일 10월 7일(수) 오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우주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리호 최종 발사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우주수송부문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	책임자	과 장	현성윤 (055-856-5130)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055-856-5133)